

로컬의 미래를 위한 어촌·어항재생의 방향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감소 시대의 어촌, 로컬의 미래

최근 언론에서 올 고교 입학생이 역대 최저인 41만 3,927명이며,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에 128곳(전년 대비 3만 2,754명 감소)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였다. 올해 출산인구는 인구 1,000명당 5.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통계청은 2028년 총인구수 5,194만 1,946명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67년 3,929만 3,827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수치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구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인구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지방 소도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어촌지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읍면은 어촌지역 총 271개 중 231개나 된다(박상우, 2018, p. 52).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어업생산성이 저하된 것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업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로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도 오래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어촌은 일정 규모의 인구밀도가 유지되어야 운영되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의 여파로 재난재해 위험도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양양의 서피비치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두운 미래만 있을 것 같은 어촌에서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퍼들의 성지로 떠오른 양양은 스페인의 이비자(Ibiza) 부럽지 않은 ‘청년들의 문화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유럽인들이나 즐길 것 같은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통영과 남해는 이제 제주도에 이어 ‘한달살이’ 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의 ‘괘찮아마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낸 청년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지 탐색하면서 여행과 문화, 로컬푸드로 만든 식당을 열어 지역주민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로컬 지향의 시대’를 표방하며 다양한 취향과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촌을 비롯한 지방 소도시를 활동 근거지로 선택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 낮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여유 있는 공간, 지역의 자연경관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쇠퇴해 가는 지방 소도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울이나 대도시보다 자연과 함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농어촌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좋은 곳이다.

지방 소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창조적인 계층뿐 아니라 아파트와 번잡한 도시를 떠나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공동체 삶 속에서 대안

교육을 실천하려는 자녀를 둔 30~40대도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리모트워크가 가능해지면서 ‘2도5촌’을 즐기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멸위기 지역인 어촌은 팬데믹 시기에 가장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가 일상으로 복귀할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세계적 재앙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재택근무의 일상화와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 랜선 공연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언택트 시대는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컬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역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삶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LGA, 2000)’으로, 로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어촌의 미래가 우울하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로컬의 미래,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지역재생의 조건

생태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그의 저서 <오래된 미래>에서 인도 북부 라다크(Ladakh) 지역의 전통이 파괴되고 회복하는 과정을 탐색하면서 “지역의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미래 인류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생태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성은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재생은 로컬의 미래를 위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로컬 지향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로컬은 단순히 서울과 대비되는 지방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로컬을 이야기하는 모종린 교수는 연남동과 홍대·성수동의 카페거리 등 골목상권과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창업활동과 경제행위 모두를 로컬의 범주에 두고 설명한다.

지역은 ‘삶터로서 지역의 공간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경험하면서 만들어 온 가치(문재원, 2017)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지역이라는 우리말 대신에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새로운 라

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와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읽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촌은 생태환경을 중시하고 지역의 먹거리를 즐기면서 일하고 싶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소위 로컬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기획의 장소로 여겨진다. 어업생산기반이 살아 있고 해안경관과 고즈넉한 어촌마을의 정취는 휴양지이자 리모트워커들이 선호하는 일터로서도 가치가 높다. 해양레포츠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양양의 서피비치처럼 아웃도어 비즈니스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과 정착이 쇠퇴하는 어촌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로컬을 지향하는 계층의 성향중 하나가 언제 어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유목민’ 성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의 미래는 지역에 사는 사람 누구라도 일상생활 서비스를 누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다양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쇠퇴하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재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생태계 회복을 통한 어촌·어항재생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여러 주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 ‘해녀의 부엌’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획력과 어촌계, 생산을 담당하는 해녀들이 기존 사업을 새로운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어촌은 아니지만 로컬을 지향하는 사례로는 춘천의 ‘어찌다농부’ 식당 운영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식당은 로컬푸드만으로 메뉴를 개발해 운영하는 곳으로 원도심의 유희공간에 자리를 잡고 관광두레나 사회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농부의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등 다양한 지역활동과 연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식당 운영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기존 농민과 상인들의 협조는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로컬의 활동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점적으로 발생하고 연계되었을 때 지역의 경제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경제생태계가 탄탄해

환경과 경관이야말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활동 자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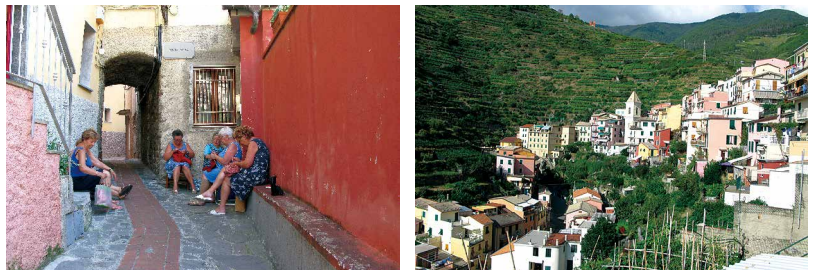
대표적 사례로는 해양레저 관광지로 유명한 이탈리아 친퀘테레(Cinque Terre)를 들 수 있다. 친퀘테레는 5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이다. 친퀘테레 국립공원 지정은 ‘해양경관과 경사지를 활용한 포도경작지를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한 지역주민들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친퀘테레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고, 포도경작을 전제로 신규 건축허가와 농업설비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생태와 토지이용현황, 인문사회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와 보존해야 할 토지, 경작지로 보존해야 할 토지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20%를 전통적인 포도경작지 운영에 재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중세시대부터 조성된 요

암벽과 포도경작지로 둘러싸인 친퀘테레의 해안경관



게스트하우스가 모여 있는 중세 골목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친퀘테레의 골목길(좌), 포도경작지로 둘러싸인 친퀘테레(우)



©auri

새와 같은 건축경관과 포도경작지의 벽쌓기 방식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공간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친퀘테레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재료를 분석·실험하여 전통적인 색채를 찾아내서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이를 지키도록 한다. 지역주민들은 포도경작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식벽 쌓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과 마을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3년부터는 철도회사와 함께 폐역사를 살려 친퀘테레 국립공원의 해안절벽을 따라 철도 운행을 재개하였다. 친퀘테레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기보다는 마을 초입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마을 내부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좁은 경사로와 중세시대의 좁은 골목길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친퀘테레에서 공간환경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친퀘테레만의 독특한 해안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후 친퀘테레는 포도경작과 가공품, 해양레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대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성과도 거뒀다. 그 결과 친퀘테레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800여 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경관’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쇠퇴하는 어촌에서는 재해에 대비하여 방파제를 보강하고 어민들의 생산활동을 위해 물량장을 정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겠지만, 바다를 매립하고 갯벌 체험장을 확대하면서 훼손되었던 바다생태계를 회복하는 한편 바다경관뿐 아니라 마을경관, 바닷가의 특수한 토양, 어촌배후 산림생태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자원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어촌·어항재생을 통해 공간환경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좋은 공간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어구와 폐자재를 어구보관창고 마감재로 활용하고, 버려진 그물망이나 조개껍질·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를 활용한다면 조형물이나 장식품을 설치해도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해양쓰레기나 어업활동으로 남겨진 폐기물로 만든 에코백과 신발, 의자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은 어민들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살 만한 어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제언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은 로컬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고 경험을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개방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며, 어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바닷가에 가면 당연히 자연산 횡집을 찾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갯 구워낸 빵이 있는 카페, 지역에서 갯 잡은 해산물로 만든 스페인(또는 이탈리아 등) 식당, 바닷가 풍경과 동네 슈퍼가 그려진 그림책이 있는 동네 책방, 시원한 맥주가 있는 브루어리, 오래된 바닷가 창고를 공유 오피스로 바꾼 공간 등 대도시의 문화가 지역감성과 어울려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람들은 어디라도 찾아간다. 결국 사람들은 공간에 채워지는 내용과 가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유입되는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새로운 경제활동인구가 연대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희자원과 빈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새로



기존 공장건물의 구조와 재료를 그대로 살려 카페와 생활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강화도의 조양방직 카페



멍게 배양장을 리모델링하여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통영의 배양장 카페

유입되는 인적자원이 지역에 부족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로컬의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마을이나 국비와 마중물 사업으로 주민경제활동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한 해산물 판매장, 바다목장 운영관, 어민복지센터 등이 운영되지 않고 유희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 공간부터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많은 이주희망자가 함께 고민해 본다면 많은 공공재원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건강한 주거와 복지시설이 갖추어진 삶터가 있어야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떠나지 않고 외지로 떠난 자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다양한



©aumi



조선소를
리모델링하여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강릉의 칠성조선소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교육·돌봄·생활문화 서비스를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지역 주민을 위해 교육·의료·복지·문화 서비스 향유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어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 특히 도서지역은 기상이 악화되면 물으로 나올 수 있는 배편마저 끊겨 응급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와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무인판매소 운영, 기상변화 예측과 대피체계 확보 등은 물론, 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연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의료서비스 체계는 의료계 협의와 제도적 개선이 선결 요건이지만 부처 협업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골목길 환경 정비,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어촌을 어촌·어항재생의 거점으로 정하고 여기서부터 지역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가 쓰이도록 하며, 일시에 국비 총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준비여건과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마중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국비 지원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박상우, 류정곤, 황재희, 이상규. (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2015). 오래된 미래. 중앙북스.